

天 大 工 大

天 大 工 大
天 大 工 大

[illegible]

2009,
이화자치단위이야기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생활도서관
시네마떼끄
이화여성위원회
틀린그림찾기

2008년,
세상을 뜨겁게, 또 떠들썩하게 달궜던 촛불의 행진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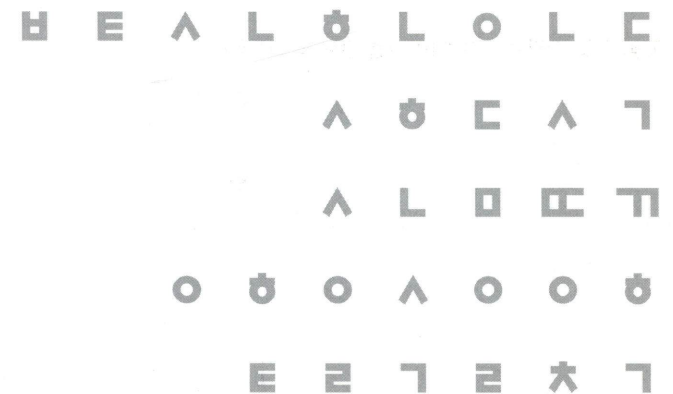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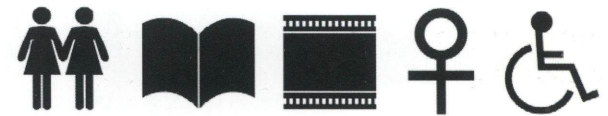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일어나기 시작한 촛불은, 단지 광우병 소에 그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정책, 대학자율화, 비정규직문제 등 사회의 수많은 모순들을 밝히는 커다란
움직임으로 확산해나갔습니다.

새내기 이화인 여러분, 또 이화 안에 몸담은 수많은 이화인 여러분, 이제는 촛불을 우리의
자리에서, 이 곳 이화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밝혀봅시다.

자치단위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들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몸담은 이화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치단위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책 읽는 대학문화를
지향하는 <생활도서관>, 학내 자치영화상영관 <시네마떼끄>,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여성위원회>,
<학내외 장애문제를 고민하는 <틀린그림찾기>의 다섯단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단위 각각의 이야기를 만나보실까요?



변날, 군,

안녕하세요,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이하 변날)입니다.

변태소녀하늘을 날다?

변날은 동성애자에 대한 경멸을 담은 수많은 단어 중 하나인 '변태'를 자칭합니다. 이는 편견을 내포한 언어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언어적 시도인 동시에, 어떠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가진 변함없고 긍정적인 확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변태소녀'라 부름으로써, 변날은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으로서의 첫 날개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변날은 자치단위로 인준되기 이전부터 학내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2002년 3월 학내 정식 자치단위로 인준 받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날은 정기적으로 회의와 세미나를 열며, 1년에 한 번씩 학내에서 수일에 걸친 레즈비언 문화제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펴내고 있습니다.

2003년 첫 번째 문화제인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를 시작으로, 2004년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걸'과 2005년 '편견클리닉, 이반과 일반', 그리고 2006년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가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문화와 예술을 다룬 문화제 '변하다'를 열었고, <성소수자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행동>에 참여하여 '성적지향'을 포함해 7가지 조항을 누락시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인 2008년에는 '성 정체성'을 주제로 삼아 마련한 여섯 번째 문화제 '변태'가 열렸으며, 2009년 역시 문화제를 비롯해 강연회, 전시회 및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학내외 사업으로 한해를 풍성하게 채워 갈 예정입니다.

변날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레즈비언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편견과 차별, 범죄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할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비상을 향한 머지않은 여정에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파란 문을 두드리시기 전!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WE ARE LESBIANS
SO WHAT? WHO CARES?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E MAIL
flyinggurl@hanmail.net

TEL
02 3277 4712

H E A L
T H O L E

생도,

안녕하세요,
생활도서관입니다:)

생활도서관은?

생활도서관은 지식과 정보 유통의 중심지인 도서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 1990년대 초반의 생활도서관 운동과 흐름을 같이하며, 1994년 “학생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혁”을 기치로 건 총학에 의해 ‘시네마떼끄’와 같이 개관되었습니다. 생활도서관은 기존의 공부하는 도서관, 딱딱한 도서관, 소통할 수 없는 도서관이 아닌 소통 가능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지향합니다.

생활도서관에는 시사, 사회, 과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간물과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매주 마련되는 신간과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간도서의 경우 의견란을 마련하여 간략한 추천 이유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도서관에서는 한 학기에 두 번 기획 도서전을 갖는 사업이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 함께 의견을 교류해보고 관련된 책을 선정해, 서평을 써서 도서관 내 전시하여 이화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열람시간과 찾아오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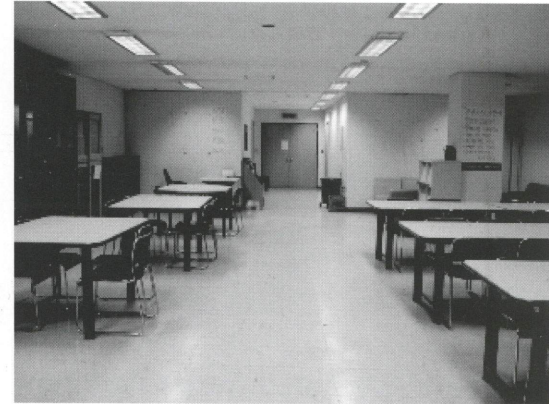
열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도서, 잡지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맡기시면 1회 3권씩 일주일 동안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람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안에는 개인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으로는 학생문화관 1층 컴퓨터실 쪽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오시는 방법과, 학생문화관 지하 1층 생활협동조합 맞은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도서전과 북 카페 외에도 독서토론회도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도서관은 지적인 이화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도서관

위치
학생문화관 242호

TEL
02 3277 4709

시떼,

안녕하세요,
시네마떼끄입니다!

시네마떼끄?

시네마떼끄(Cinematheque)는 프랑스어로 '소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화 시네마떼끄는 이처럼 작은 극장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영화 상영관이자 자료실입니다.

학생 문화관 신한은행 ATM기 옆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 이화 시네마떼끄로 오시면 보고 싶었지만 구하기가 어려워 보지 못했던 영화들, 알려지지 않았지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좋은 영화들, 영화사에 획을 그었던 명작들에 흠뻑 취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네마떼끄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이화 시네마떼끄는 무엇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운영위원들은 매년 10개 정도의 주제를 정해 이를 바탕으로 학기 중 이화인들을 대상으로 상영을 진행시키며 직접 만든 리플렛을 제공합니다. 새내기분들은 시네마떼끄에 비치된, 혹은 클럽에 올라온 신청서 작성 후 간단한 면접을 통해 운영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에 대해 밤새워 이야기할 누군가를 그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영화를 통해 이화인들과 소통하고 싶은 새내기가 있다면, 시네마떼끄는 바로 그런 09학번 새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이 멀고도 가까운 무엇을 접하고 겪어가는 길에 함께한다면 좋겠습니다.
멋진 영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1학기 상영 일정
색 / 관계, 소통 그리고 치유 / 단편 /
공간 /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전

09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네마떼끄

싸이클럽

<http://cithe.cyworld.com>

TEL

02 3277 4710

^ L O E T

여위,

2009년,
이화여성위원회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여성주의로 소통해보아요~)

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

이화여성위원회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이화여대 학부생들의 모임입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성주의가 어우러져 더 큰 여성주의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위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단지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화 내에서 어떻게 여성주의를 실천할지 기획합니다. 항상 학생들의 생각을 들으며 소통을 시도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나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위원회는 다른 어떤 기구의 산하에도 들어있지 않으며, 학부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위'입니다. 자치단위는 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 혹은 특정 단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위인을 특정 단대 소속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요~!

3월에는 '스무살의 페미니즘'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여성주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치단위연합 문화제를 통해서 또한 좀 더 깊게 여성주의적 담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서 더욱 가깝게 여성주의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뿐 아니라, 이화여성위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학내에서 혹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성주의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화여성위원회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여성주의적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그것을 이화인 여러분과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소통하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이화인과 소통하며 변화하는 여성주의를 만들어가는 여성위원회의 여성주의는 이렇게 대학생들의 일상 속, 사회의 일상 속에서 출발합니다.

‘여성주의가 뭘까? 여성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라도 여성주의가 숨쉬는 보랏빛 여위 방(학문관 218호)으로 놀러오세요.

여성위원회는 언제나 열려있으며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학년불문, 나이불문, 전공불문!!



이화여성위원회

위치

학생문화관 218호

E MAIL

ewhalovewom@hanmail.net

TEL

02 3277 4708



틀린그,

틀린그림찾기?
여기 정말 틀린그림 찾는 곳인가요?

틀린그림찾기는 이런 곳이에요

새 학기마다 이따금씩 학문관 427호의 문을 열고 고개를 빠끔히 내밀며 수줍게 묻는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네! 맞아요!"라고 간단하게만은 대답할 수 없어 조금 난감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저희 단위를 소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D

우리 주위의 미간을 찡그리고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틀린그림들, 뭐가 있을까요?

장애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 계단과 턱만이 있는 건물과 교통수단으로 인해 외출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 시설에 갇혀, 사회적 편견의 벽에 갇혀 인권이 유린당하는 장애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차이를 곧 차별로 만드는 수많은 '틀린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틀린그림찾기>가 어떤 '틀린그림'을 찾는지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틀린그림찾기는 학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비롯한 인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학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이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고, 차이에 근거한 권리를 쟁취하고 또 이를 강화해가는 운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틀린그림'에 눈감고,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를 발견하고 고쳐가는 우리들의 운동에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사회적 의미의 장애? 장애 인권? 장애운동?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학문관 427호 "틀방(틀린그림찾기방)"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D

틀린그림찾기가 궁금하시다면 ?!!

아래의 연락처로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o^

틀린그림찾기

위치

학생문화관 427호

다음카페

cafe.daum.net/ewhasearcheye

TEL

02 3277 4768

E 2 7 2 6 7